

강미나 “혜리 언니, 제가 더 잘 나오게끔 도와줬죠”

‘KBS 2TV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첫 사극 도전
고교선배 이혜리 조언 힘… “롤모델은 박보영”
‘가수 출신 연기자’ 편견 걱정 “나만 잘하면 돼”

“고등학교 선배 이혜리, 내가 더 잘 나오게끔 도와줬죠.”

그들 ‘구구단’ 출신 강미나(23)는 첫 사극 도전이 쉽지 않았다. 최근 막을 내린 KBS 2TV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서 상대역인 유승호(29), 그룹 ‘걸스데이’ 출신 이혜리(28)에게 많이 의지했다. 유승호는 아역 출신인 데다가 사극 연기 경험이 풍부하고, 이혜리는 걸그룹 선배인 만큼 큰 힘이 됐다.

“유승호는 낯을 많이 가렸는데 잘 챙겨줬다. 애드리브를 해도 잘 받아줬다. 이 작품을 하면서 ‘혜리 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했다. 언니, 연기 선배, 친구로서 많이 챙겨줬다. 간간히 만나 밥을 먹을 때 ‘힘든 것은 없냐고 물어봐 줘 힘이 됐다. 촬영하면서 고등학교 선배인 걸 알게 됐다. 현장 기술이 약한데, 언니가 연기를 오래 해 내가 조금 더 잘 나오게끔 도와줬고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써 줬다.’

이 드라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의 시대,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감찰 ‘남영’(유승호)과 술을 벗어 인생을 바꿔보려는 밀주꾼 ‘강로서’(이혜리)의 로맨스다. 강미나는 병판대 무남독녀인 ‘한애진’으로 분했다. 애진은 기성세대가 그어 놓은 선에 반박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제약을 받는 것도 답답해했다. “조선 시대 없는 독특한 캐릭터”라서 매력적이었다고 즐겼다. “내가 톤이 살짝 낮는데 애진은 천진난만해 대사 톤을 조금 올렸다”고 덧붙였다.

애진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속에 쌓인 울분을 해소했다. ‘병판대 딸이 도둑질한다’는 설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나만 현대극으로 말하면 어떡하지?” 고민했다”면서도 “현장에 나가니 내 말투가 튀지 않고 잘 어울리더라. 애진이 물건 훔치는 설정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 않냐. 미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조선 시대에 갇힌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애진의 일탈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선판 MZ세대”라는 별명이 붙었더라. 연기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서 공감했다”며 “연모하는 마음, 하고 싶은 일을 실천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나도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애진은 실천하고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왕세자 ‘이표’ 역의 변우석(31)과는 두 번째 호흡이다. 2017년 tvN 단막극 ‘직립 보행의 역사’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는 둘 다 신인이어서 풋풋했다”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서로 배려하는 여유가 생겼다. 더 즐겁게 촬영했다”고 귀띔했다. “또 만나게 된다면 시트콤에서 친남매로 나오고 싶다”고 밝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애진이 이표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꼽았다. “부디 그 마음 낭비하지 말고 저 주십시오. 제가 귀하게 아껴 드리겠습니다”라는 대사가 있다”며 “애진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유독 사랑 앞에서만 무너졌다. 그 대사가 첫사랑에 관한 간절

함과 풋풋함이 묻어 나서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회에서 이표는 왕세자 자리를 내려놓았다. 남장한 애진과 함께 떠났다. 강미나는 “애진은 처음부터 금강산에 가고 싶어 했다”면서 “그 시대에도 애진이 추구한 걸 실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만족해했다. “나도 ‘애진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을 한참 한 뒤 맞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는 편”이라고 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시청률이 높지 않았다. ‘K-사극’ 열풍을 일으킨 ‘연모’(2021) 후속작으로 주목 받았지만, 시청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1회 7.5%(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시작해 16회 5.9%로 막을 내렸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중계 여파도 없지 않았다.

강미나는 첫 사극 도전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점”이라고 평했다. “욕심이 많은 편이라서 아쉬운 부분만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놀리는 장면에서 더 놀랐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21점은 다음에 더 채워서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물론 주위에서는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구구단 멤버 김세정(26)이 “너무 귀여워라”며 매일 얘기해주는 힘이 됐다”고 돌아봤다. 시청자 반응도 찾아봤다”며 “애진이 빨리 세자된 뒤라는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 그만큼 캐릭터에 이입해 응원하는 거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강미나는 2016년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 101’에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로 활동했다. 그해 구구단으로 데뷔했지만, 4년 여만인 2020년 해체했다. 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2017) ‘계룡선녀전’(2018) ‘호텔 델루나’(2019) 등에서 연기력을 쌓았다. 차기작도 확정된 상태다. 올해 KBS 2TV 드라마 ‘미



남당’으로 시청자를 만날 예정이다.

“가수 출신 연기자”를 꼬리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내가 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나만 더 잘하면 된다’는 주의다. 오히려 가수 출신이라서 ‘카메라를 기가 막히게 잘 찾는다’며 ‘가끔 작품상 이유로 카메라를 보고 연기할 때가 있다.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떨리지 않는다”고 했다.

“매번 캐릭터와 에피소드가 달라지지 않느냐. 아직도 극본을 보면 설렌다. 연기의 제일 큰 매력이다. 롤모델은 박보영 선배다.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2015)을 보고 훌쩍 반한 뒤 선배 작품을 다 찾아봤다. 만약 작품에서 만난다면 회사를 배경으로 한 곳에 막내 직원으로 참여하고 싶다. 시청자들이 TV를 볼 때 은연 중에 ‘재 진짜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申선수 거의 밟고 지나가”…원손 22바늘 꿰맨 박장혁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장혁이 부상 당시 심경을 밝혔다.

SBS TV 예능물 ‘신발 벗고 돌싱포맨’ 방송

박장혁은 1일 방송한 SBS TV 예능물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SBS 해설위원 박승희와 함께 출연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 스케이팅 날에 부상 당한 원손을 언급했다.

박장혁은 “중국에서 네 군데 열 두 바늘을 꿰맸는데, 한국 와서 잘 안 아물어 한 부위만 다시 열 바늘 정도 꿰맸다”며 “날에 다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손을 밟고 지나가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박윤기 역시 “선수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며 탄식했다. 박장혁은 “앞 선수가 넘어지면 보통 피한다”며 “이준서가 넘어지니까 일본 선수도 점프해서 피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당시 착용한 장갑도 공개했다. 박장혁은 “넘어진 상황만 집중하다 보니 처음엔 몰랐다”며 “장갑이 찢어져 있어서 (알았다)”고 회상했다. 박윤기는 “보통 날이 지나가면서 (장갑이) 깨끗하게 찢어진다”며 “근데 ‘거의 밟고 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그재그로 터져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장혁은 계주 경기 출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참고 타볼까 생각했는데 상처가 너무 깊게 벌어져 의료진이 절대 탈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윤기는 “한 손으로 밀어도 된다. 널 무조건 태울 거고, 부담감과 불편함은 안고 갈 테니까 편하게 타기만 해”라고 설득했고, 박장혁과 함께 한 계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MBC ‘내일’ 포스터 뚫는 김희선의 눈빛

상반기 기대작…오는 25일 첫방송 예정



MBC 상반기 기대작 ‘내일’의 김희선, 로윤, 이수혁, 윤지은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25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내일’은 죽은 자를 인도하던 저승사자들이 이제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승 오피스 휴먼 판타지 드라마다. 라마 작가의 동명의 네이버웹툰 원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일 ‘내일’ 제작진은 김희선(구려 역) 로윤(최준웅 역), 이수혁(박종길 역), 윤지은(임롱구 역)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단연 돋보이는 김희선은 포스터를 뚫고 나올 듯한 예리한 눈빛으로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빼앗는다. 동시에 ‘난 사람 살리는 저승사자거든’이라는 카피가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활약에 기대를 더한다.

그런가 하면 이수혁은 가족장갑을 장착해 압도적인 포스를 풍긴다. ‘위기관리팀이 왜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라는 카피로 위기 관리팀과의 대립을 예상해 해 긴장감을 형성한다.

‘내일’의 캐릭터 포스터는 저승사자 4인방의 캐릭터를 한눈에 파악하게 만들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마마무 휘인 ‘6시 내고향’ 리포터 데뷔…전주 남부시장 방문

오늘 오후 6시 방송

그들 ‘마마무’의 휘인이 이제는 리포터로 데뷔한다.

3일 오후 6시 방송되는 KBS 1TV ‘6시 내고향’ 특집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착한 소비 장보고’에 휘인이 리포터로 출격한다.

휘인은 과거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6시 내고향’의 리포터를 꼭 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 “‘6시 내고향’ 리포터 분들 긴장하세요! 저 휘인이 리포터계를 뒤흔들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휘인은 고향인 전주에 위치한 ‘전주남부시장 청년몰’에 방문했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은 ‘전주 남부시장’ 2층에 위치해 11년째 꽃피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으로 현재 20여 명의 청년 상인들이 함께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향에 있는 또래 청년상인들을 만날 생각



을 하니까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다”는 소감을 전한 휘인은 높은 텐션을 유지하며 특유의 밝은 톤으로 청년 상인들과 즐겁게 얘기를 나눴다.

떡방에서 빛을 발한 휘인은 “리포터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먹방이잖아요”라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전용 손

가락을 들고 다니며 상인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휘인은 한복 도자기 인형을 판매하는 상인이 코로나19로 전주의 관광객이 줄어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연을 듣고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 “한복 도자기 인형으로 제가 깜짝 인형극에 도전해보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봄, 김민석 함께 피운 ‘꽃’…美친 컬래버

오는 11일 음원 사이트 통해 발매

그들 2NE1 출신 가수 박봄이 멜로망스 김민석과 함께한 신곡을 발매한다.

2일 소속사 디에이션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봄은 오는 1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꽃(Flowe)’을 발매한다.

‘꽃’은 박봄이 약 1년 만에 발매하는 신곡으로, 어느새 무너져 내린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자와 그런 여자를 바라보고 같이 아파하며 묵묵히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남자의 마음을 담았다.

특히 이번 신곡에는 멜로망스 김민석이 함께해 완성도를 높였다. 앞서 ‘봄’을 통해 신다



라박, ‘4시 44분’을 통해 휘인, ‘도레미파솔’에서는 창모와 호흡을 맞췄던 박봄은 김민석과 함께 컬래버 신곡 ‘꽃(lower)’으로 아련한 보컬색을 드러낼 예정이다.